

與 “의료계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무관용”

2차 전국 의사총파업 돌입 정부, 수도권에 업무개시 명령 민주, 의사 면허 취소 거론 야권, 대화 재개·파업 재고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재확산 속에서 의료계가 '제2차 전국 의사총파업'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의협의 양보를 강조했다.

또 의사 출신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파업 참여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성급한 정책으로 파업을 불러왔으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 생명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 이번 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방역당국, 지자체,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각자 사정과 생각이 있었지만 비상사국인 만큼 우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방자치단체는 한결같이 절박하게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데 의료인이 집단 휴진하는 것은 어떤 이

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상사국에 의료계가 다른 의도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송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즉각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며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한 위험천만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총파업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서로 양보할 것

을 요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 종사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갖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사회가 한 발짝 서로 양보해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정부 정책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총파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잘못하고 언론이 매도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며 "그

것이 의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의무"라고 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민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으로 강화에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 선제 자가격리

취재기자 코로나 검사... 오늘 결과 여부따라 일정 재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들의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지난 22일 친지와 식사하고 23~25일 휴무였다가 이날 출근해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친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해당 기자도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상태다.

당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내일 오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일정도 재개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남인순 이형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자가격리 방침에 따라 이날 저녁 예정됐던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만찬도 취소됐다. 이 대표는 다음 날 오전 일정까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통합당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김종인·서병수 “정부, 4차 추경안 국회 제출해달라”

미래통합당은 26일 정부·여당에 남다른 그만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등 민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가장 타격받는 계층이 있으니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건정성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서병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빨리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

행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빨리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권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광화문 집회에서 찾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이동과 집합을 권장했다. 전체적인 확진의 20~30%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전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8·29 전대, 47명 참석 ‘최소화’

온라인 방식 진행...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9명만 참석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코로나 19 탓에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 전당대회준비위 총괄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참석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집합 제한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된 만큼 당일 현장에는 총 47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차기 지도부 후보자, 실무 지원

인력 및 풀기자단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참석 인원을 9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별도 회의실에 대기하다가 해당 순서에만 무대에 등장한다. 전당대회는 29일 오후 1시 여의도 당사에서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말은 녹화 영상으로 상영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의 건,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정 건 등 대의원대회 안건이 상정된 후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이어진다.

오후 3시께 투표가 끝나고, 오후 3시 50분께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투표 결과 및 당선자 발표는 오후 5시께 이뤄진다.

오후 5시 15분부터는 당 대표 당선자의 수락연설이 진행된다.

만일 이낙연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미리 녹화된 동영상으로 수락 연설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의 현장 투표(45%)와 권리당원 ARS 투표(40%), 국민(10%)·일반당원(5%)의 표를 합산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26일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을 임명하는 등 당직개편을 했다.

도당 기획조정실장에 송형근 전 도의원, 대변인에는 홍지영 현 대변인을 유임했다. 김한중 수석부위원장은 제7·9·11대 3선 도의원으로 현재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송형근 기획조정실장은 박상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10대 도의회 의원(운영위원장)을, 홍지영 대변인은 광남일보 정치부장·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양기호 총무국장과 박경민 당원관리국장은 유임됐다. /김형호 기자 khh@

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6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 중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 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제

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 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가칭 제조데이터진흥원)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라진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희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동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